

산별노조 시대, 지역노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역노조가 지난 9월 6일 창립 10년차 정기총회를 맞았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회고하면서 안팎으로 부딪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끈질긴 노력으로 이겨내고 산별노조운동을 앞장 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긍지와 포부를 담은 글을 보내 왔다.

김현미

서울남부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

이 글을 쓰는 저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해온 노동자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세풍전자노동조합은 1996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남부지역노조의 분회로 가입하여 활동한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노조활동 1년을 되돌아 보면 처음 생각과는 달리 새로 사업을 꾸려야 할 영역이 너무도 다양하고 많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부지역노조의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처음 감동을 느꼈던 것은 지회 조합원이 저에게 직접 조합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합비는 기본급에 1.5% 인데 그 배에 해당하는 3만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한달 월급을 받아 직접 조합에 전해주는 조합원을

보면서 '아! 이런거구나', 매달 회사에서 공제해 받던 조합비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지역노조는 운영방식과 사업의 영역이 기업별 노조와는 사뭇 달라 노동조합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활동한다고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는 산별노조운동입니다. 우리 남부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운동의 척박한 이땅에서 산별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 글을 읽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역노조에 관심을 갖고 산별노조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0개의 공장, 230명의 조합원

우리 노조가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

역은 서울의 남부지역입니다. 이 곳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신도림, 독산공, 시흥, 문래동 등 주로 금속계통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수는 12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다보니 근로조건이나 복지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조의 조합원이 일하는 공장들도 심한 소음과 먼지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장을 찾아가면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는 조합원을 보면 들어가보지 않아도 현장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월차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조합원이 다니는 대협산업이라는 공장은 연월차를 내년부터 실시하라고 해도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조건을 뚫고 지역금속산별을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는 조직대상이 한 기업에 매여 있지 않고, 조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공장 규모에 관계없이 금속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즉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남부지역노조는 1988년 9월에 약 40여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지난 9월6일 10년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약 230여명(조합원 수가 자주 바뀜)이지만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

는 공장은 70여개에 달하고 당연히 노조가 상대해야 하는 사장도 70여명이나 됩니다.

지역노조가 다 그렇듯 남부지역노조 또한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또한 떠나가기도 하고 분회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들기도 하고 투쟁과정에서 구속도 되고 해고도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300여명에서 40명까지 줄어드는 등 노동운동의 발전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노조설립 초기 멤버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새로운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의 운영

남부지역노조는 올 9월 6일 정기총회를 통해 단일노조로 점차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는 조직관리를 위해 분회와 지회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한 공장에 조합원이 다수이면 분회로 조직하여 관리하고 영세사업장(마찌꼬바)에 다니는 개별 조합원을 지회로 편성하여 관리하게 됩니다.(현재 분회 4개, 지회 1개)

분회나 지회는 자체 총회를 통해 임원(분회장, 지회장)을 선출하며 대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간부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노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

회사 지회의 독자성을 최소화하고 의결과 집행구조를 없애고 대의원 체계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선출은 각 공장별(분회) 대의원이 있고 개별조합원은 지역 또는 모임별로 대의원을 선출 합니다. 대의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97년 임단투 시기에는 대의원 선거구별로 실천대를 구성해서 활동 하였고 대의원 의식향상과 활동강화를 위한 교육과 수련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비 납부방식을 2:1일에서 전액 조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체계는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임원, 분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조합원 40명당 1인추가), 상무집행위원회(1처 2국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노조의 통합사업을 전담하는 지역노조통합추진 실무팀이 있어 통합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월1회 "금속인의 벗" 선전지를 발행하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노조의 사업

남부지역노조의 사업기초는 조직확대입니다. 조직확대사업은 '전조합원이 실천한다' 라는 결의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활동을 통한 확대사업 - 주변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동료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과 지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굿패 등을 운영하여 조직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분회건설사업 - 특정한 공장을 선정해서 분회건설을 목표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통합사업 - 세풍처럼 기존에 기업별노조를 지역노조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95년부터 약 2년여에 걸친 조직확대 사업을 통해 기존의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남부지역노조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의 기업별노조가 통합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 취업사업 - 현장사업부를 주체로 지역의 공장현황을 파악하여 조합원 및 지역노동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업 - 간부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지 제작배포, 학습모임 활성화, 다양한 통일사업 전개 등

• 법률상담 및 지역현황 조사사업 - 조합 상근자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을 받아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퇴직금, 임금채분, 산재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문래동, 신도림동 중소기업 금속사업장 현황조사를 조합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장기적인 사업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투쟁

각 분회의 임단투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공장 즉 조합원이 1명이나 2명이 있는 공장에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투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노조가 그렇듯 분회에게 교섭권을 인정해 주었으나 96년 이후 분회는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통일시키고 '교섭권은 노조에 있다'로 정리하고 97년 임단투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97년 교섭과정에 사측은 분회와 교섭을 체결하겠다고 했으나 분회등록취소로 맞서 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회나 개별공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달랐으나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단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였고 분회나 지회별로 보완하여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쟁의결의와 교섭위원 선출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섭방식은 대각선 교섭을 활용하는데 첫 교섭은 집단교섭을 하였고 마지막 교섭 또한 노조의 교섭위원 전원과 각 사측의 교섭위원이 참가하여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노조는 비록 첫 교섭과 조인식만을 집단교섭으로 성사시켰으나 이 작은 성과가 단일노조, 산별노조로 가는데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이 2명인 곳과 1명인 공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9월23일 현재 18일차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작다보니 노동자들도 억울해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공장이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직장을 자주 옮기는 편입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들은 공장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장이 많아 노조가 관여하게 되면 외면부터 하는 사장이 많습니다. 공장도 영세한데 큰 공장, 대기업에게도 싫음을 받는데 왜 노조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공장이 잘되면 그때 보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노조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이런 여러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면서 일단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수, 공장 규모에 관계없이 교섭을 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공장이 작아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작은 공장의 투쟁이 승리할 때만이 지역의 12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노동조합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의 전망

남부지역노조는 현재 지역금속산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각 연맹이 있으나 중소

영세 미조직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까지는 손을 댄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구호로 산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규모와 근무조건, 임금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질 때, 한울타리로 단결될 때 가장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부지역노조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는 이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입니다. 현재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이상의 지역 선전활동, 각종 상담활동, 지역노동자를 위한 거리한마당, 작은공장의 입단투 사업들이 바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역노조의 조합원들은 산별조직을 만들어가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합원 전체가 조직확대 사업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타아사업, 신용협동조합설립, 주택조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년 분회 단협사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회사가 적극 협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과제들

우리노조는 지역노조이기 때문에 풀어야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첫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현재 조합비는 월 3백만원 정도에 사무실 월세(지역노조 사무실은 외부에 있음)를 비롯한 유지비가 7십만원, 상근자 1명에 대한 임금이 월 80만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연맹의무금과 지역본부, 지구위원회 의무금 각종 분담금을 합하면 실제로 사업에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전체 조합비에 반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조직활동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어 지역에 선전물을 한 번 돌리기 위해서도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합니다. 또한 간부들에게나 조합원에게 활동비는 고사하고 총회 때 작은 기념품도 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매년 일일호프나 특판사업을 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재정문제는 조직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어떻든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근역량의 확보입니다. 우리노조는 현재 상근자가 5명입니다. 지역노조 중에서는 그나마 상근자가 많은 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조는 하나인데 상대해야 할 사용자는 70여명이 됩니다. 조합원이 다니고 있는 공장에 한 번 방문하려면 상근자 5명이 몇 일을 다녀야 합니다. 지역노동자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더많은 상근자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재정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원 대다수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보니 언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지 이전을 하게 될 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가 위한 판정이 난 후 조합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사무실이 단위사업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노조에 대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퇴근길에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지역노조는 고민도, 과제도 많지만 성과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글을 통해 우리 노조가 지향하는 전망이나 사업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지역노조 활동을 하면서 했던 사업을 다 정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노조는 산별노조운동을 한발 앞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에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의 전망에 관해 심각한 고민도 했었고 그 고민을 풀기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노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합원 간담회, 교육토론, 문화행사, 수련회 등을 통해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개의

분회가 해산을 하였고 1개의 분회가 가입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신입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조합원이 바뀌고 새로 가입하고 해서 얼굴 익히기도 바쁜 1년이었습니다.

지역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싶은 노동자는 정말 해 볼만한 운동입니다. 우리 노조에는 지역에서 단위노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장, 사무국장, 선봉대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신 역량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노조운동을 배우고 열심히 하려는 젊은 조합원도 많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일도 많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자던 동지가 갑자기 지방으로 가 버린다는지 결혼 후 활동이 뜸해진다는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는 신념있는 동지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전망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운동의 전망을 가지고 오십시오. 남부지역노조로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노동형제들이 우리 지역노조에 대해 많이 알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